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6년 4월 7일 Vol. 9 No. 28 ISSN 2635-5981

인도의 남-남 개발 협력과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배경
2. 인도의 남-남 개발 협력 전략
3. 시사점

주요 내용

▶ 인도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개발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하고, 남아시아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이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정부는 앞으로 남-남 개발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정부는 다양한 남-남 개발 협력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인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 수출입은행 차관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제공하고 있음.
- 인도기술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유·무상 원조를 부탄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사업 및 사회정책 지원에 제공하고 있음.
- 유산 복원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종교적, 문화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의약품, 의료진, 식량, 연료, 필수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남아시아 기반 협력체 및 인도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통해 다층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인도가 글로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동반자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국제 개발 협력 전략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도 인도와의 삼자 및 소다자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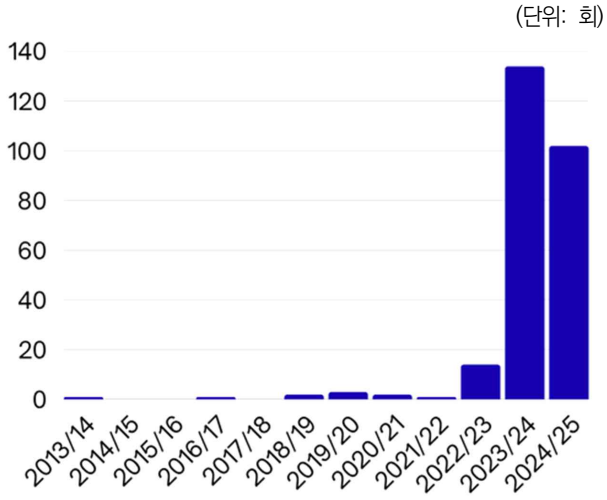
- 인도와의 삼각 개발 협력을 공식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남아시아 기반 협력체의 사업에 참여하여 대형 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고 위험을 다변화할 수 있음.
- 국제태양광동맹(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재난회복을 위한 인프라연합(CDRI: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국제바이오연료동맹(GBA: Global Biofuels Alliance) 등 인도 주도 소다자 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여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1. 배경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면서 인도는 개발도상국과의 남-남 개발 협력 확대를 주요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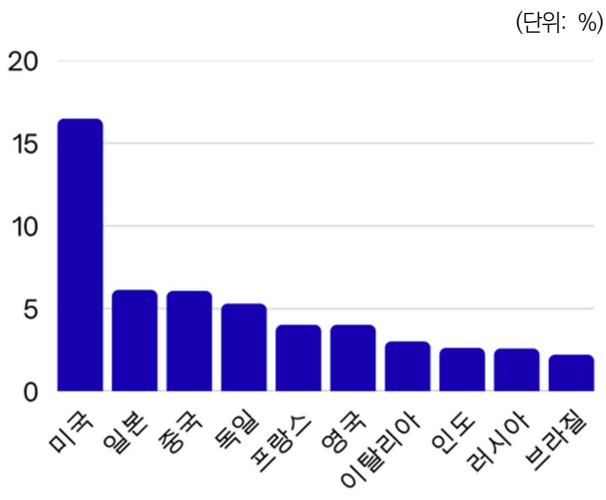
- 글로벌 사우스는 개발도상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식민지 경험, 국제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 개발 문제 등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함.
-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중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서방 중심의 국제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개발도상국 중심 소다자 협력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인도는 서방 중심 국제질서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오랜 기간 남-남 개발 협력을 외교 전략의 주요 축으로 설정해 옴.
  - 독립 이후 인도정부는 강대국 중심의 경제·군사 동맹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비동맹주의(Non-alignment)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탈식민지 국가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함.
- 2020년대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를 외교 담론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남 개발 협력을 보다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인도 외무부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사우스' 언급 건수가 2021/22년 1회에서 2022/23년 14회, 2023/24년 및 2024/25년 100회 이상으로 증가함(그림 1 참고).
  - 인도정부는 2023년 델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Voice of the Global South)라는 회의체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들과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을 주도함.

그림 1. 인도 외무부 연차보고서 내 '글로벌 사우스' 언급 건수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각호), Annual Report.

그림 2. 주요국의 IMF 투표권(2026년 3월 31일 기준)



자료: IMF,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 인도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 속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남 개발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함.

-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남-남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인도의 경제 규모는 세계 5위이며, 2030년이 되기 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Asia Power Index에서 인도는 강대국(Super Power)으로 분류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40점을 기록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 아닌 주요국(Major Power)으로 분류됨.[1)]
- 중국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통해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함에 따라 인도와 중국 간 역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인도는 남아시아 내 개발 협력을 통해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자 함.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추진과 함께 2005~25년 파키스탄 내 중국의 건설 규모는 525억 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큼.[2)]
  - 중국은 부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전통적으로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경제적, 외교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인도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대표성이 제한된 가운데 남-남 개발 협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추후 거버넌스 개혁 과정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함.
  - 인도는 세계 인구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아직 주요 국제기구 내 투표권 등 제도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G7의 회원국이 아님(그림 2 참고).
- 인도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남-남 개발 협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음.

■ 본고에서는 인도 외무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7대 개발 협력 수단을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표 1 참고).

표 1. 인도 외무부의 개발 협력 관련 부서 및 협력 수단

외무부 부서(Division)	협력 수단
Development Partnership Administration-I	수출입은행 차관
Development Partnership Administration-II	인도기술경제협력(ITEC: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
Development Partnership Administration-III	정부 유·무상 원조
Development Partnership Administration-IV	문화유산 복원
Rapid Response Cell	의료 지원 및 재난 대응
BIMSTEC & SAARC	남아시아 지역 협력체
Economic Diplomacy	인도 주도 소다자 협력체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1)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INDIA)' https://power.lowyinstitute.org/countries/india/(검색일: 2026. 3. 29.). 인도는 경제 역량(Economic Capability), 미래 자원(Future Resources) 지표에서 3위, 군사력(Military Capability), 회복 탄력성(Resilience), 문화적 영향력(Cultural Influence), 외교적 영향력(Diplomatic Influence) 지표에서 4위를 기록함.

2) Derek Scissors(2026), "Steady, Not Soaring, Chinese Investment in 2025,"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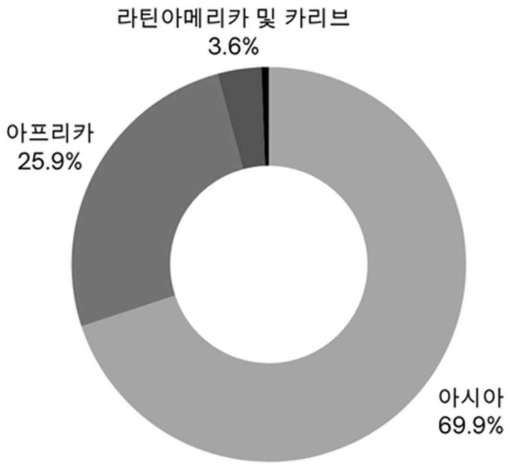
2. 인도의 남-남 개발 협력 전략[3)]

가. 수출입은행 차관

■ 인도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출입은행 차관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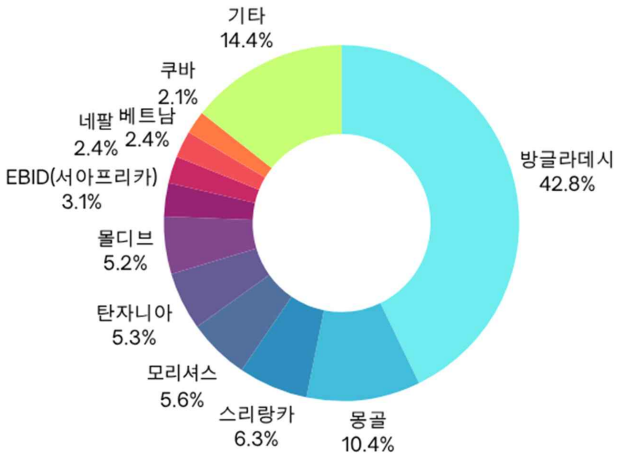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 차관을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인프라, 산업 인프라,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차관 사용 조건으로 사업 금액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인도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여 대상국의 개발 협력과 동시에 인도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를 지원함.[4)]
- 수출입은행 차관 약정 규모는 2014/15년~2024/25년 163억 달러로 인도정부의 이웃 우선 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고 있음(그림 3 참고).
  - 방글라데시(42.8%), 몽골(10.4%), 스리랑카(6.3%), 모리셔스(5.6%), 탄자니아(5.3%), 몰디브(5.2%) 등이 주요 협력 대상국임(그림 4 참고).

그림 3. 2014/15~2024/25년 인도 수출입은행 차관(약정) 지역별 비중



자료: India Eximbank - GOI Statistics LOCs.

그림 4. 2014/15~2024/25년 인도 수출입은행 차관(약정) 국별 비중



자료: India Eximbank - GOI Statistics LOCs.

- 대표 사업은 16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 차관이 제공된 1,320MW 마이트리(Maitree)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인도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을 지원함.[5)]
  - 인도 국영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와 방글라데시 BPDB(Bangladesh Power

3) 김경훈(2023),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3-01. '제5장 남-남 개발협력'의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함.
4) India Exim Bank, "Lines of Credit - Government of India Supported LOCs," https://www.eximbankindia.in/lines-of-credit (검색일: 2026. 3. 29.).
5) Power Technology. (n.d.). Maitree Super Thermal Power Project, Bangladesh, https://www.power-technology.com/projects/maitree-super-thermal-power-project-bangladesh/?cf-view&cf-closed(검색일: 2026. 3. 29.).

Development Board)의 50:50 합작사인 BIFPCL(Bangladesh India Friendship Power Company Limited)이 사업을 개발·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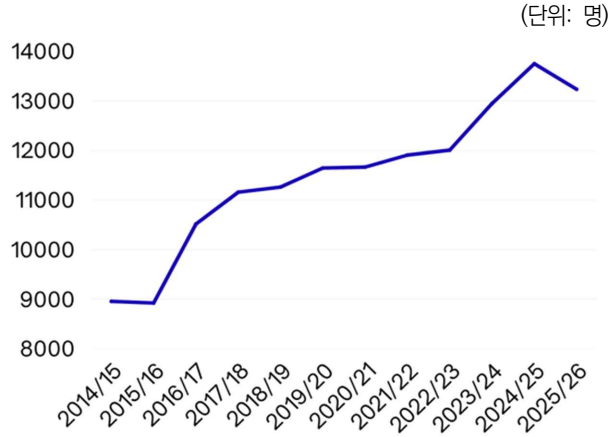
○ 인도 국영 BHEL(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을 수주함.

나. 인도 기술경제협력(ITEC) 프로그램

■ 인도정부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ITEC 프로그램을 제공해 옴.[6)]

- ITEC 프로그램을 통해 1964년부터 160개 이상 국가의 20만 명 이상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10년간 참여자 수는 증가세를 기록함(그림 5 참고).
- 인도정부는 인도 내 유수 대학 및 훈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년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약 400개의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함.
- 주요 교육 분야는 △ 공공행정·정책, △ 경제·금융, △ 디지털·ICT, △ 인프라·도시개발, △ 농업·농촌개발, △ 방위·안보 등이며, 최근 교육 과정이 다양화되고 있음(표 2 참고).

그림 5. ITEC 참여자 수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Performance Smart Board.

표 2. ITEC 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징
ITEC	캠퍼스 대면 교육
e-ITEC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
ITEC-Executive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 정책 대면 교육
ITEC-Onsite	인도 전문가가 현지에서 수행하는 역량 강화
ITEC-Expert	

자료: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ITEC). 웹사이트.

다. 정부 유·무상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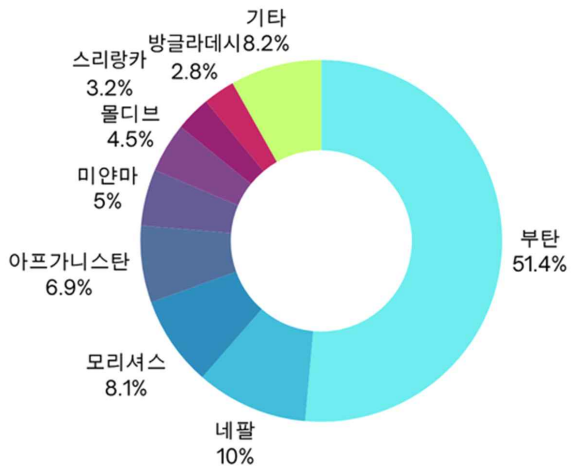
■ 인도정부는 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 2014/15년~2023/24년 인도정부의 유·무상 원조가 총 5,679억 루피에 달했으며, 이웃 우선 정책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제공됨.
  - ○ 주요 협력 대상국은 부탄(51.4%), 네팔(10.0%), 모리셔스(8.1%), 아프가니스탄(6.9%), 미얀마(5.0%) 등임(그림 6 참고).

6)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ITEC), https://itecgoi.in/(검색일: 2026. 3. 29.).

- 대표 사업은 지난 10년간 인도정부 유·무상 원조의 절반 이상이 제공된 부탄 내 수력발전소로 부탄은 인도의 지원으로 총 3,160MW 규모의 수력발전 역량을 확보함.
  - 인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부탄 내 수력발전소 사업으로 추카(Chukha, 준공 연도: 1986년, 설비용량: 336MW), 쿠리추(Kurichhu, 2001년, 64MW), 탈라(Tala, 2006년, 1,020MW), 망데추(Mangdechhu, 2019년, 720MW), 푸나창추-II(Punatsangchhu-II, 2025년, 1,020MW)가 있음.[7]
- 인도정부는 핵심 수원국인 부탄을 대상으로 5개년 개발계획(Five Year Plan)을 지원해 옴.[8]
  - 인도는 부탄의 12차 5개년 계획(2018~23년)에 500억 루피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해 83개의 프로젝트 연계 지원(PTA: Project Tied Assistance) 사업과 524개의 지역사회 고효과 개발 사업(HICDP: High Impact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등을 지원함.
  - 인도는 13차 5개년 계획(2023~29년)에 12차 대비 두 배 규모인 1,000억 루피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 10월 기준 양국 정부는 71개의 PTA 사업과 572개의 HICDP 추진에 합의함(표 3 참고).
- 인도정부의 유·무상 원조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서도 인도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부탄의 푸나창추-II(Punatsangchhu-II) 사업의 경우 주요 토목 및 수공기계 공사는 인도의 자이프라카시 어소시에이츠(Jaiprakash Associates)와 갬몬(Gammon)에 발주되었으며, 전기·기계 공사는 인도의 BHEL에 발주됨.[9]

그림 6. 2014/15~2023/24년 인도정부 유·무상 원조(집행) 국별 비중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Performance Smart Board.

표 3. 인도정부의 부탄 13차 5개년 계획 지원 규모 (분야별)

분야	규모
프로젝트 연계 지원(PTA: Project Tied Assistance)	700억 루피
경제 부양 프로그램 지원	150억 루피
지역사회 고효과 개발 프로젝트(HICDP: High Impact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100억 루피
프로그램 원조	50억 루피
총액	1,000억 루피

자료: Embassy of India, Thimphu, 'Development Plan Assistance'

7) Embassy of India, Thimphu, 'Hydropower Projects,' https://www.indembthimphu.gov.in/pages/Mzgz(검색일: 2026. 3. 29.). 1,200MW 규모의 푸나창추-II(Punatsangchhu-I) 사업은 개발 중임.
8) Embassy of India, Thimphu, 'Development Plan Assistance,' https://www.indembthimphu.gov.in/pages/Mzgy(검색일: 2026. 3. 29.).
9) Embassy of India, Thimphu, 'Punatsangchhu-II Hydropower Plant', https://www.indembthimphu.gov.in/pages/NDU5(검색일: 2026. 3. 29.).

라. 문화유산 복원

■ 인도는 협력 대상국의 문화유산과 유적을 보존·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 외무부의 조정 및 지원 아래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은 개발도상국의 유산 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ASI는 1861년에 설립되어 인도 전역의 고고학 유적 조사, 문화재 보존, 발굴 및 연구와 더불어 인도정부의 대외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부 산하 기관임.[10]
-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관련 건축물을 재건하는 사업을 인도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해당 전략을 사원 외교(Temple Diplomacy)로 부르기도 함.[11]
-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12]
  -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Borobudur) 및 프람바난(Prambanan) 사원 보존 사업, 네팔 다람살라스-파슈파티나트(Dharamshalas-Pashupatinath) 사원 개발 사업,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타 프롬(Angkor Wat Ta Prohm) 사원 보존 사업 등을 진행함.

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 인도정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인도양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국가(First Responder)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함.
- 인도 외무부 및 국영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 육군은 구호 활동을 위한 병력 배치, 야전병원 설치 및 필수 인프라 복구를 수행하며, 해군은 해상·연안 지원과 구호물자 운송을 담당하고, 공군은 의료팀, 재난 대응 인력, 구호물자를 피해 지역으로 수송하는 등 재난 대응 작전에 참여함.[13]
  - 2024년 태풍 야기(Yagi)로 인해 동남아시아가 큰 피해를 경험했을 당시 인도군, 외무부, 국영기업이 사드바브(Sadbhav) 작전을 통해 정수 및 위생용품, 담요, 침낭, 텐트, 발전기, 식량, 의료 물품 등 다양한 물자를 라오스(10톤), 베트남(35톤), 미얀마(53톤)에 제공함.[14]
- 인도정부는 2021년 백신 외교 이니셔티브 '백신 마이트리(Vaccine Maitri)'를 추진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 해결에 기여함.[15]

10)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About Us,' https://asi.nic.in/(검색일: 2026. 3. 29.).
11) Mahaseth, Harsh(2023), "Temple Diplomacy and India's Soft Power: A Cultural Approach to Diplomacy in Southeast Asian States," *India Review*, 22(1): 28-42.
1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Cultural and Heritage Cooperation in Development Projects,' https://www.mea.gov.in/Cultural-and-Heritage-Cooperation-in-Development-projects.htm(검색일: 2026. 3. 30.).
13) PIB, "Beyond Battlefield: Indian Armed Force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28319&lang=1&reg=3&utm(검색일: 2026. 3. 30.).
1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5), *Annual Report 2024*.
1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COVID-19 Updates: Vaccine Supply," https://www.mea.gov.in/vacci

◦ 인도정부는 약 3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무상 지원(Grant Assistance), 상업적 수출(Commercial Supply), COVAX 프로그램 형태로 약 100개국에 공급함.

- 인도정부는 식량 안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 2024년 남부 아프리카에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다수의 국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인도정부가 말라위(쌀 1,000톤), 짐바브웨(쌀 1,000톤), 잠비아(옥수수 2,500톤), 나미비아(쌀 1,000톤, 옥수수 1,000톤), 레소토(쌀 1,000톤)에 곡물을 제공함.[16]

◦ 2026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인도는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에 긴급 연료를 공급함.[17]

바. 남아시아 지역 협력체

■ 인도는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를 통해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국 간 역학관계에 따라 협력 성과의 범위 및 구체성이 상의함(표 4 참고).

- 남아시아 소지역 경제협력(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2001년 ADB 주도로 설립된 협력 플랫폼으로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다수의 SASEC 사업이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음.

◦ 2025년 12월 기준 ADB는 △ 에너지, △ 경제회랑, △ 교통, △ 무역 원활화, △ 보건, △ 관광, △ ICT 분야에서 99개 인프라 사업에 263.6억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167건의 기술협력사업에 2.5억 달러를 제공함(그림 7, 표 5 참고).[18]

◦ 인도에서는 타밀나두 산업 연결성 사업(Tamil Nadu Industrial Connectivity Project, 시작 연도: 2021년, 비용: 9.05억 달러), 국도 회랑(1구간)(National Highway Corridor (Sector 1), 2004년, 7.6억 달러), 비하르 新갠지스강 교량 사업(Bihar New Ganga Bridge Project, 2016년, 7.15억 달러) 등의 SASEC 사업이 진행됨.

-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 협력 이니셔티브(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는 1997년 설립된 협력체로 2022년 5차 정상회담에서 헌장(Charter)을 도입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19]

◦ 주요 협력 분야로는 △ 무역·투자 및 개발, △ 환경 및 기후변화, △ 안보, △ 농업 및 식량안보, △ 인적교류, △ 과학·기술·혁신, △ 연계성이 있음.

◦ 참여국이 각 주요 협력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는 안보 분야를 담당함.

-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 이니셔티브(BBIN: Bangladesh-Bhutan-India-Nepal Initiative)의 차량이동 협정(MVA: Motor Vehicle Agreement)은 국경 간 화물 운송, 여객 이동을 확대하고 물류비용 및

ne-supply.htm(검색일: 2026. 3. 29.)
1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5), *Annual Report 2024*.
17) Nikkei Asia(2026. 3. 31.). India Boosts Regional Ties with Energy Aid for Sri Lanka, Bangladesh. https://asia.nikkei.com/spotlight/iran-tensions/iran-war/india-boosts-regional-ties-with-energy-aid-for-sri-lanka-bangladesh(검색일: 2026. 3. 31.).
18) SASEC. 'SASEC Projects', https://www.sasec.asia/index.php?page=projects(검색일: 2026. 3. 31.).
19) BIMSTEC. 'About BIMSTEC', https://bimstec.org/(검색일: 2026. 3. 31.).

운송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으로 2015년에 참여국들이 서명함.

○ 하지만 부탄정부가 환경 및 인프라 관련 우려를 제기하며 BBIN MVA 발효를 위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20]

- 남아시아 협력 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경제협력, 사회개발, 빈곤 감소, 지역 통합 촉진을 목표로 1985년에 설립된 협력체이나, 인도-파키스탄 간 마찰로 2014년 이후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등 협력 성과는 제한적임.[21]

○ 주요 협력 분야로는 △ 인적 자원 개발 및 관광, △ 농업 및 농촌 개발, △ 환경·자연재해·생명공학, △ 경제·무역·금융, △ 사회 개발, △ 정보 및 빈곤퇴치, △ 에너지·운송·과학기술, △ 교육·안보·문화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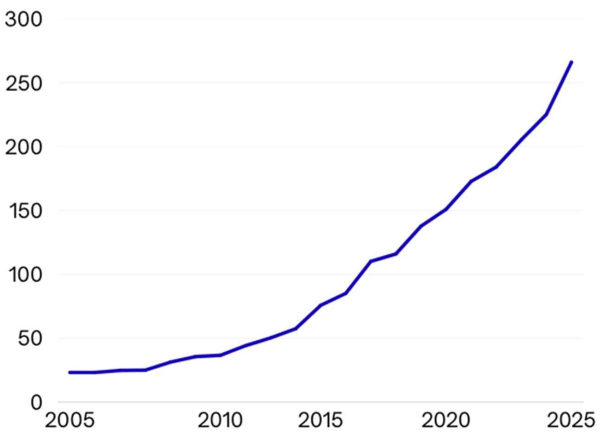
표 4. 남아시아 지역 협력체 참여국

	SASEC(7개국)	BIMSTEC(7개국)	BBIN(4개국)	SAARC(8개국)
네팔	O	O	O	O
방글라데시	O	O	O	O
부탄	O	O	O	O
인도	O	O	O	O
스리랑카	O	O		O
몰디브	O			O
미얀마	O	O		
아프가니스탄				O
태국		O		
파키스탄				O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그림 7. SASEC 사업비(누적)

(단위: 억 달러)



자료: SASEC - SASEC Projects.

표 5. SASEC 분야별 사업비(2025년 12월 기준)

(단위: 건, 억 달러)

분야	사업 건수	사업비
- 교통	55	165.9
- 경제회랑	12	43.5
- 에너지	18	41.4
- 무역 활성화	8	9.8
- 관광	4	2.8
- 정보통신기술	2	0.2
유·무상 원조	99	263.6
기술협력	167	2.5

자료: SASEC - SASEC Projects.

20) SASEC - News and Event(2025. 4. 13.), "BBIN Countries Ready Motor Vehicles Agreement Protocol," https://www.sasec.asia/index.php?page=news&nid=1635&url=bbin-ready-mva-protocol(검색일: 2026. 3. 31.).
21) SAARC, 'About SAARC', https://nepal.saarc-sec.org/index.php/about-saarc/about-saarc(검색일: 2026. 3. 29.).

사. 인도 주도 소다자 협력체

■ 인도는 국제태양광동맹(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재난회복을 위한 인프라연합(CDRI: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국제바이오연료동맹(GBA: Global Biofuels Alliance) 등 개발 관련 소다자 협력체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 ISA는 2015년 파리 COP21을 계기로 구상된 협력체로 태양광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에 본부가 위치함.
  - ISA는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태양광 투자 유치, 10억 명에 대한 청정에너지 접근 확대, 1,000GW 규모의 태양광 설비 확대, 연간 10억 톤 규모의 CO_2 감축 기여를 목표로 한 'Towards 100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 사업, 분석 및 정책 제언 사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2]
  - 2026년 2월 기준 ISA에는 1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23]
- CDRI는 2019년 UN 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기후변화와 재난 위험에 대한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인도에 본부가 위치함.
  - CDRI는 △ 고위험 지역 지원, △ 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 재난 대응 인프라 솔루션 제공, △ 제도 기반 조성 부문에서 △ 역량 강화, △ 혁신, △ 금융, △ 리스크 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6년 3월 기준 CDRI에는 6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24]
- GBA는 2023년 델리 G20 정상회담 기간에 공식 출범했으며, 바이오연료 산업 및 교역 발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인도에 사무국이 위치함.
  - GBA는 바이오연료 사용 확산을 위해 △ 역량 강화 지원, △ 기술지원, △ 정책 및 기술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6년 3월 기준 GBA에는 3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25]

3. 시사점

■ 인도는 다극 체제 속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남-남 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주요 개발 협력 대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2026년 2월, 네팔에서 2026년 3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상황으로 잠정 중단되었었던 인도의 개발 협력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BRICS 의장국을 맡은 인도는 개발도상국 간 협력체를 활용한 개발 협력 사업 및 새로운 소다자 협력 플랫폼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

---

22) ISA, 'About US,' https://isa.int/about_us(검색일: 2026. 3. 29.).
23)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Performance Smart Board, 'International Engagement: Solar Alliance Country,' https://meadashboard.gov.in/indicators/130(검색일: 2026. 3. 29.).
24) CDRI, https://cdri.world/(검색일: 2026. 3. 29.).
25) CDRI, https://cdri.world/(검색일: 2026. 3. 29.).

■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 내의 핵심 개발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삼각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삼각 또는 삼자 협력은 수혜국(Beneficiary)이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전통적인 공여국(Facilitator)이 재원과 기술을, 주축국(Pivotal Partner)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구조임.
- 주요 공여국은 풍부한 네트워크 및 개발 경험을 가진 인도와의 삼각 협력을 제도화해 옴.
  - 인도는 특히 남아시아 및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출입은행 차관, ITEC 프로그램, 유·무상 원조 사업을 오랜 기간 진행한 결과 경쟁력을 보유함.
  - 인도는 미국과 2014년 국제 개발을 위한 삼각 협력 기본원칙 선언문(Statement of Guiding Principles on Triangular Cooperation for Global Development), 영국과 2015년 제3국 개발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on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및 2021년 인도-영국 국제 혁신 동반자 관계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India-UK Global Innovation Partnership), 독일과 2022년 삼각 개발 협력 사업 시행에 관한 공동 의향 선언(Joint Declaration of Int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ird Countries)을 체결하며 삼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도 아래 제3국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표 6 참고).
- 한국은 인도를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도와의 삼각 개발 협력을 공식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30년)은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남남 및 삼각 협력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및 '신흥공여국과의 삼각 협력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수평적·다각적 파트너십 확대'를 주요 방향성으로 제시함.
  - 한국정부는 삼각 개발 협력 추진 의지를 반영한 한·인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삼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

표 6. 인도-독일의 삼각 개발 협력 사업

수혜국	주요 내용
카메룬	인도에서 개발된 발근 정아 삽수(Rooted Apical Cuttings) 기술을 활용해 감자 종서(씨감자) 생산 역량 강화
말라위	여성의 농업·식품 시스템 참여를 지원하는 농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모델 설계
가나	지속가능한 생계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대나무 산업의 비즈니스 개발
페루	사회 정책 및 사업의 계획·모니터링·평가를 지원하는 지리공간(geospatial) 포털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자료: German Cooperation: 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 Triangular Cooperation.

■ 한국정부는 남아시아 기반 협력체의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대형 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고 위험을 다변화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 및 현지 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역 기반 협력체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과거 한국수출입은행의 SASEC 참여 사업을 벤치마킹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금융기구 및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아카우라-락삼 복선철도 사업(Akhaura-Laksam Double Track Project), 치타공-콕스바자르 철도사업-1단계-1차분(Chittagong-Cox's Bazar Railway Project, Phase 1-Tranche 1) 등 SASEC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표 7 참고).

표 7. SASEC의 대표 사업(2025년 12월 기준)

	국가	분야	시작 연도	사업비 (억 달러)	재원조달 출처	현황
아카우라-락삼 복선철도 사업 (Akhaura-Laksam Double Track Project)	방글라데시	교통 (철도)	2015년	9.97	ADB, EIB, KEXIM, 방글라데시 정부	완료
차토그램-도하자리 철도 사업 (Chattogram-Dohazari Railway Project)	방글라데시	교통 (철도)	2025년	9.91	ADB, 방글라데시 정부	진행 중
타밀나두 산업 연결성 사업 (Tamil Nadu Industrial Connectivity Project)	인도	경제 회랑	2021년	9.05	ADB, 인도정부	진행 중
다카-실렛 회랑 도로 투자 사업-1차분 (Dhaka-Sylhet Corridor Road Investment Project, Tranche 1)	방글라데시	교통 (도로)	2021년	8.80	ADB, 방글라데시 정부	진행 중
치타공-콕스바자르 철도사업-1단계-1차분 (Chittagong-Cox's Bazar Railway Project, Phase 1-Tranche 1)	방글라데시	교통 (철도)	2017년	7.99	ADB, 방글라데시 정부, KEXIM	진행 중

주: ADB(아시아개발은행), EIB(유럽투자은행), KEXIM(한국수출입은행).
자료: SASEC - SASEC Projects.

표 8. 주요 선진국의 인도 주도 소다자 협력체 회원 가입 현황

	ISA	CDRI	GBA
네덜란드	O	O	O
이탈리아	O	O	O
일본	O	O	O
캐나다	O*	O	O
독일	O	O	
미국	**	O	O
영국	O	O	
프랑스	O	O	
호주	O	O	
한국			

주: * 2026년 3월에 가입 계획을 밝힘. ** 미국정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66개 국제기구 탈퇴 명단에 ISA가 포함됨.
자료: 주요 협력체 웹사이트 및 주요 언론 보도.

■ 한국정부는 인도 주도 소다자 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여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은 인도가 주도하는 소다자 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며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ISA, CDRI, GBA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표 8 참고).
- 인도정부는 한국의 ISA 및 CDRI 참여를 요청해 옴.
  - 자이상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한국에 ISA와 CDRI 참여를 제안함.[26] KIEP

2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Remarks by EAM, Dr. S. Jaishankar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F37676%2FRemarks_by_EAM_Dr_S_Jaishankar_at_the_Korea_National_Diplomatic_Academy=&utm_(검색일: 2026. 3. 31.).